

'91년을 보내며...

특별히 이렇다 할 <일>하나 해 놓지 못했는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니,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화살과 같이 날아간 한 해! 이 한 해의 환경계와 나 자신을 돌아 본다.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지부 확대 결성

새해 벽두 부터, 필자는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지부를 전국적으로 확대 결성하는 작업에 열을 올렸다.

기존에 지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1975년 창립 이후, 50여 곳이 결성되어 있다.) 그동안 필자의 무능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데 대하여, 자성과 함께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지역 단위로 규합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그래 왔듯이, 스스로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할 사람을 지부 1차 조건으로 내 세웠다. 말하자면 지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형편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본부에서의 지원은 방향 제시와 학술적인 자료 제공 정도다. 그 외에는 지부를 책임 맡은 지부장이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도 지부를 확대한다는 소문이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지부를 신청해 왔다.

고맙고 감동적인 일이었다.

필자는 평소, 환경보호는 스스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다. 즉, 직업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직업적인 경지를 초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작업에 돈을 받거나, 월급의 댓가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순수한 뜻에서 “환경보호운동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 나라에는 자비로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별로 없는 환경보호운동가 중에서 다음 분들의 작업은 필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윤명조<한국환경기술연구소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문제”로 표출되기 이전인 60년대 초반부터 대학의 강단과 연구소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직접 개인연구소를 개설해 환경대책의 현장에 뛰어든 분이다.

그 어려운 개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환경과 공해”라는 월간지도 발행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퍼낸 자료가 환경계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기술공학적 측면의 환경인들 거의가 대학과 공공연구소에서 보장받고 있는데 비해, 자비로 환경보호에 진력하는 엔지니어 환경인이다.

이용운<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회장>

버젓한 직장이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오염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그리고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보(환경관리인연합회보)에 게재되는 광고 수입으로 연합회와 회보를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노력과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최 열<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일찌기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해 온, 유명한 반체제 인사다. '60년대 말, 필자가 월간<다리>지 편집장으로 있었을 때 부터 지면이 있는 사이라, 최열씨가 '80년대 초 감옥에서 풀

려 나오자 마자, 반공해운동에 투신해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필자와는 각별한 연대를 이어 왔다.

초창기 부터 현재 까지, 이리 저리 자금을 마련해 반공해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 소장>

자연보호, 그 중에서도 아니라 야생화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태정씨의 자연보호 동기 또한 순수하다.

능히 여유있게 살 수도 있는데, 애써 야생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메고 있는 것은 민족의 얼을 되찾고, 무관심 속에 멸종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야생화(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국고보조도 월급도 없다. 야생화 탐사 시 찍어 온, 사진 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어 얻는 약간의 수입으로 연구실과 살림을 꾸려 가고 있다.

백인근 <월간 공해대책 대표>

직업의 수단으로 환경계에 들어 왔다가, 환경보호에 오염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월간 공해대책>의 기자로 뛰다가 오염의 실상을 만나, 환경보호에 깊숙히 빠져들었다. 그리고 끝내는 <월간 공해대책>을 인수받아 스스로 어렵고 힘든 잡지 발행의 짐을 떠 맡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아집이다.

차준엽 <자연의 친구 대표>

필자와는 아직 정식으로 인사가 없지만, 자연이 좋아 자연을 찾아다니다가 자연보호에 휘말린 분으로 알고 있다.

자연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차비나 제대로 마련되는지 궁금하다.

이종기 <건설환경신문사 대표> 서청남 <환경경제신문사 대표>

우리나라에는 환경관련 주간지가 열 손가락을 넘는다. 모두 이 나라의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환경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이종기씨와 환경경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서정남씨는 환경보호 그 밑빠진 항아리에 물 길어



낙동강 폐늘오염,
이 사태는 환경문제로 인한 최초의
“국가 준비상사태”였다.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 1천만명 뿐만 아니라,
4천만 전국민이 식수 공포증으로
떨어야 했던 이 사태는 단순한 오염피해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위협 받은
국가 준비상사태였다.

안면도 핵폐기물장 사건은
 말로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결과다.
 핵폐기물장 유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로 일을 처리해
 가뜩이나 핵공포증에 걸려 있는 주민들에게
 더욱 공포증을 가중시켰다.



다 붓기가 신명이 나서 적자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고마운 분들이다.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지부장

앞에서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지부를 맡을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한국환경보호
 협회의 지부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새삼스럽다.

한마디로 내 돈들여, 고생을 사서하는 분들이
 다. 그것이 진짜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필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분들이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낙동강 폐놀오염 사태

그것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사태다. 아니
 그런 대형 수질오염 사태가 이제사 일어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완전하고 충분한 하수처리장 하나 없는 강에,
 공장폐수가 눈치 것 부어지고, 하수라기에는 그
 독성이 날로 강해지는 생활하수가 마구잡이로
 늘어나 유입될 뿐만 아니라 농토와 골프장의 농
 약이 지하수를 통해 들어 오고 그것도 부족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지고 있는데, 그 강이 그
 동안 무사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 사태는 환경문제로 인한 최초의 “국가준비
 비상사태”였다.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 1천
 만명 뿐만 아니라, 4천만 전국민이 식수 공포증
 으로 떨어야 했던 이 사태는 단순한 오염피해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위협 받은 국가준
 비상사태였다.

이 사태로 환경처장관이 물러났다. 정작 물
 러나야 할 장관과 국무총리는 자리를 보존하고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환경인 참패

민주주의 국가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그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
 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로 더욱 파괴될 자연과
 더욱 오염될 환경을 걱정해 용기있는 환경인들
 몇 사람이 출마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환경인 참패로 끝났다. 물
 론 구조적으로 여권인사와 돈이 있는 후보가 당
 선되기 마련인 선거였지만, 그래도 이토록 무참

하게 환경인들이 참패당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지방자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말로는 공해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환경을 지킬 파수꾼을 뽑는데는 인색했다. 아니 무지 했다.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에서 남북한 환경문제 대책회의 제의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가 결성된 것은 1989년 10월이다. 결성의 동기는 행정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하나로 일원화시켜, 보다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자연과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연관련 단체와 환경관련 단체의 대표들로 발기가 이루어졌는데, 처음 스물 다섯분이 모여, 이 조직이 25인위원회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 후 문호를 개방해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라도 우리나라의 자연과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모시고 있는데, 현재 예순 일곱분이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까지 1백인을 모셔, 명실상부한 〈국가 환경대책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여간 그 발기 위원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각성 행사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모여 국내 처음으로 남북한 자연, 환경대책 회의를 정식으로 제안 했다.

안면도 핵폐기물장 사건

안전하고 당장의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이 끝내 민중봉기식의 공해반대 운동으로 비약 했다.

소위 안면도 핵폐기물장(정부는 임시 보관소였다고 말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사건이라고 지칭되는 이번의 사건은 환경문제가 생존권 차원의 민중봉기로 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문제가 이런 사건으로 까지 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당국의 안이한 원자력발전 대책에 있었다. 즉 말로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면

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결과다.

그리고 핵폐기물장 유치와 같은 센시티브한 문제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로 일을 처리해 가뜩이나 핵공포증에 걸려 있는 주민들에게 더욱 공포증을 가중시켰다.

때 늦게나마 현재 핵폐기물장 유치 지역을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100% 주민 찬성지역이 과연 있을 것인가?가 걱정되며 몇몇 지역 유지에 의한 핵폐기물장 찬성이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안전성과 문제점 등을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까발려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로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것 뿐이라는 한심한 설명은 제2, 제3의 안면도 사건을 불러 오고, 때에 따라서는 최악의 공해 반대 주민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이 불러 온 수해와 환경처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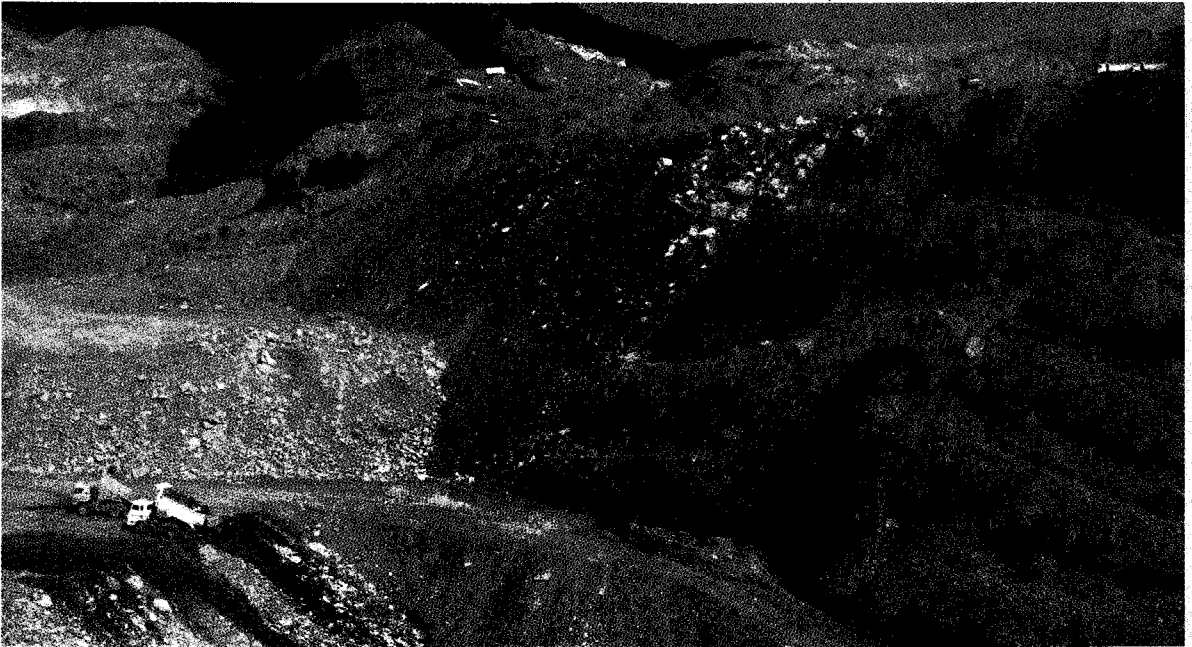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 건설이 끝내 인명과 재산을 빼앗은 수해로 번졌다.

그런데도 환경처는 이번의 수해가 골프장 건설과는 무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 그러지 않아도 환경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부처가 아니고, 국가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부처라는 비아냥을 확인시킨 꼴이되었다.

흔한 말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기본 점수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수해를 골프장과는 무관하다고, 골프장 편에 서서 극구변명을 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골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말해 아직 우리네 형편으로는 골프란 사치하고 한심한 과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이 땅덩이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인 자연과 환경면의 용



량으로 보아, 어디 골프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현실에서 반자연보호적이고 반환경보호적인 골프나 칠 그런 여유가 있느냐 묻고 싶다.

하기야 어떤 바보는 골프장을 잔디도 녹화사업이라고 우기지만, 그건 미국과 같이 사막에 잔디를 심어 골프장을 조성했을 때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와 같이 삼림이 영성한 산을 보호는 못할 망정 그것을 깔아 뭉개어 골프를 치겠다는 강심장은 지나간 유행어와 같이 “민나 도로보”의 심뽕이 아닐 수 없다. 골프장하면 수입잔디에 뿌려지는 농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농약보다 더 독성인 것은 돈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의 엄청난 위화감이다.

이 위화감이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오늘의 세태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쩌다 돈과 권력을 갖게 된 자가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골프장 행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모 부처에서 골프의 대중화라는 것을 내세워 한강의 고수부지 등에 골프

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 잘 하는 것이다. 이 파괴되고 오염된 강토를 전부 골프장으로 만들어 신나게 망해보자! 어차피 이판 사판이 아니더냐? 공해로 죽건, 골프장에 죽건 죽기야 매 일반인데 그럴바에야 차라리 돌대가리들의 머리와 같이 딱딱한 골프공에나 맞아 죽자! 그래야 장례비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대망의 '90년대라고 해서 모두들 이 한 해에 대하여 또 기대를 해 왔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나라 살림 돌아가는 꼴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들의 정신도 파괴되고 마음도 악에 오염된다는 그 간단한 진리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우울할 뿐이다.

이 한 해, 필자는 이렇다 할 일 하나 못하고 화살과 같이 빠른 세월에 실려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 버려졌다. 한심한 일이다.

날로 더욱 파괴되고 있는 자연과 환경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과한다.

〈筆者: 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